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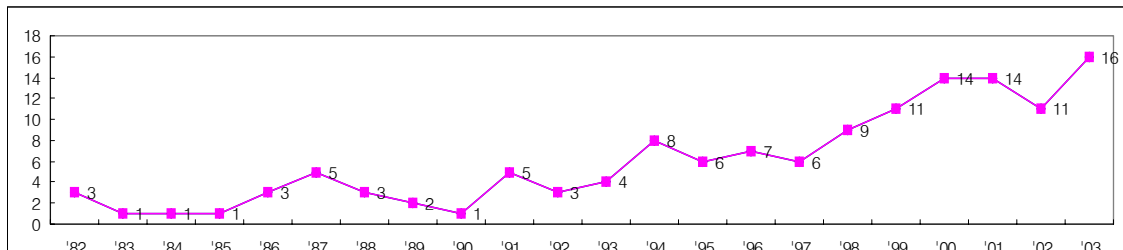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 및 환경

김기국(STEPI 부연구위원, kkkim@stepi.re.kr)

## 1. 머리말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외국인투자 자체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가 저조하였으나, 외환위기의 발생 및 극복 시기를 계기로 해서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산업자원부에 신고된 외국인투자기업(투자 규모 10만 달러 이상) 수는 5,284개사이며, 이 가운데 16.6%에 해당하는 877개사가 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을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연구소가 새로 설립되었고, 1999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추이(단위: 개소)



주: 외국인 지분율 100%인 경우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그러나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들의 경우 대부분 설립 동기가 연구개발 그 자체에 맞추어지기보다는 한국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현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지원 역할의 수행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이 인식하는 국내의 연구개발환경 및 여건 또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수행된 일부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을 연구개발 관련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정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현황을 검토하고, 이들의 연구개발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며, 2004년 하반기에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 및 환경에 대해 실시된 Survey

의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확대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현황

### (1) 개황

2003년 10월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투자규모 10만 달러 이상)는 총 938개소이며,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 연구인력 규모는 30,545명, 1개 연구소당 평균 연구인력은 32.56명이다(<표 1> 참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는 국내 전체 기업부설연구소의 약 9% 안팎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을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으로는 약 1-2% 수준이다<sup>1)</sup>.

<표 1>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현황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투자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년도		기업규모		연구인력
		'97년 이전	'98년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10% 미만	201	94	107	90	111	14,451
10 ~ 50% 미만	407	156	251	75	332	7,602
50 ~ 100% 미만	194	91	103	47	147	5,222
100%	136	59	77	34	102	3,270
전 체	938	400	538	246	692	30,545

주: 설립년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 인정을 획득한 시기로, 실제 연구소가 설립된 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외국인 지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숫자는 14.5%인 136개소, 연구인력 규모는 10.7%인 3,27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1개 연구소당 평균 연구인력은 24.04명으로 전체 평균의 약 3/4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5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1개 연구소당 평균 연구인력은 36.27명으로 이들보다 50%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설립년도별 현황

설립년도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에 설립된 연구소가 전체의 57.4%(538개소)에 달함으로써(1997년 이전 설립 400개소), 외환위기 극복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연구소 설립이 과거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부설연구소를 운영해온 마이크로소프트, IBM, 3M, 오라클, 다우코닝, 보쉬, 볼보, 머큐리 등에 이어 1998년 이후에도 유니레버, 씨멘스, 바스프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연구소 설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표 2> 참

1) 이는 2004년 9월 7일자로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숫자가 1만개를 넘어섰다는 기념비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조).

<표 2>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부설연구소 설립 현황

부설연구소명	투자국	설립년도	연구분야	소재지역	연구인력
(주)노키아티엠씨 기술연구소	핀란드	1999	전기전자	경남	20
(주)머큐리 기술개발본부	벨지움	1982	전기전자	경기	104
바이엘세원(주) 기술연구소	독일	1994	화학	경남	6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부설연구소	독일	1993	화학	경기	12
볼보건설기계 연구소	스웨덴	1986	기계	경남	104
씨멘스(주) 메디칼초음파연구소	독일	2003	전기전자	서울	28
(주)유니레버코리아 중앙연구소	네덜란드	2001	화학	대전	19
한국다우코닝 기술연구소	미국	1988	소재	충북	21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 기술연구소	독일	1991	전기전자	경기	24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연구소	미국	1995	전기전자	서울	65
한국바스프(주) 군산기술연구소	독일	1998	화학	전북	10
한국바스프(주) 기술연구소	독일	1994	화학	울산	10
한국바스프(주) 연구소	독일	1996	화학	대전	16
한국쓰리엠(주) 기술연구소	미국	1993	화학	경기	62
한국아이비엠(주) 기술연구소	미국	1991	전기전자	서울	46
한국오라클(주) 부설 기술연구소	미국	1993	전기전자	서울	14
한국하니웰 연구소	미국	1995	전기전자	충남	51
한국후지제록스 기술연구소	일본	1987	기계	인천	63

주: 모두 외국인 지분을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3) 연구인력 규모별 현황

그러나 연구인력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연구인력 2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소가 전체의 69.8%(655개소)에 이르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연구인력 규모별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현황

연구인력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	설립년도	
		'97년 이전	'98년 이후
10명 미만	264	127	137
10 ~ 20명 미만	391	90	301
20명 이상	283	183	100
전 체	938	400	538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표 3>을 통해 비교해 보면, 1998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들의 경우에도 연구인력 10명 미만인 연구소의 비중은 약간 감소(31.8%→25.5%)했으나, 연구인력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연구소가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연구인력 20명 이상 연구소의 비중은 오히려 크게 낮아짐으로써(45.8%→18.6%)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4) 지역별 현황

한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소 숫자 및 연구인력의 두 가지 지표에서 경기(302개소, 12,401명)와 서울(282개소, 7,491명)의 두 지역이 전체의 62.3%와 65.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1998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538개소)의 경우에도 경기(178개소)와 서울(205개소)이 전체의 71.2%를 차지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이들 두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집중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표 4>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설립년도 및 연구인력

지 역	외국인투자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년도		연구인력
		'97년 이전	'98년 이후	
강 원	6	5	1	166
경 기	302	124	178	12,401
경 남	45	25	20	1,830
경 북	41	30	11	2,183
광 주	13	3	10	273
기 타	10	5	5	172
대 구	17	10	7	459
대 전	34	16	18	1,124
부 산	16	7	9	247
서 울	282	77	205	7,491
울 산	26	16	10	1,262
인 천	40	20	20	546

전 남	8	6	2	234
전 북	11	7	4	490
총 남	45	25	20	1,014
총 북	42	24	28	653
전 체	938	400	538	30,545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3.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기존 연구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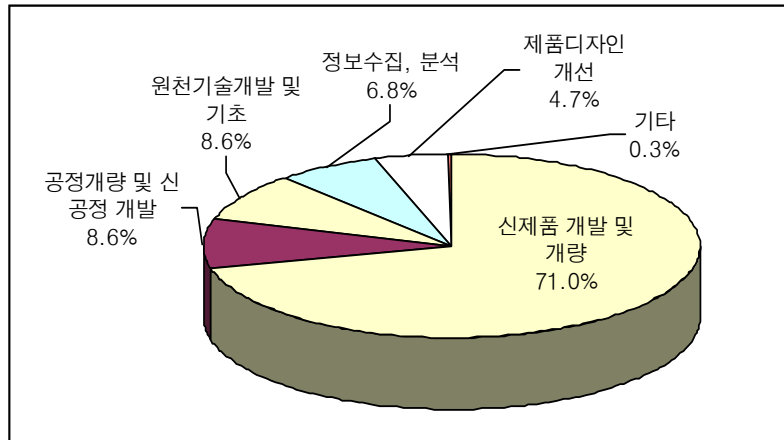
아직까지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통계와 자료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중 부수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항목을 조사한 일부 연구결과가 파편화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며, 이나마 시계열의 단절 및 통계기준의 불일치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통계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둔다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이후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 관련 지표들이 모두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추세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2000).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로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0, 2002), 산업연구원(2000, 2002), 한국산업기술재단(200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9, 2000, 2002, 2004) 및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2003) 등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목적과 동기, 연구개발투자, 국내 연구개발환경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성과 및 국내 파급효과를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1) 연구개발의 목적과 동기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의 연구개발활동은 대부분 신제품 개발 및 개량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산업연구원, 2002).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품의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한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산업연구원, 2002). 상대적으로 원천기술개발이나 기초연구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이 부분은 본사 중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주요 기능



자료: 산업연구원(2002)

(2) 연구개발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 조사시기 및 조사대상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다소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표 5> 참조). 다만 2001년까지는 외국인 지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집약도가 국내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가 2002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까지 이들 연구소의 연구개발집약도가 낮았던 이유는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상대적으로 활발했거나 아니면 모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제약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산업연구원, 2002).

<표 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비교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율 100%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2.56%	2.22%	1.57%	1999년
1.98%	-	1.69%	2001년
2.25%	-	2.61%	2002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0, 2002,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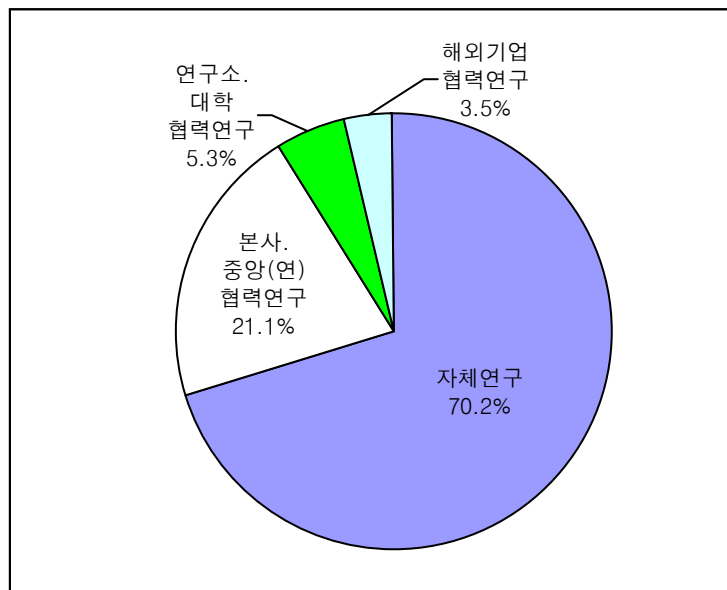
(3) 국내 연구개발환경에 대한 인식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은 국내 연구개발환경의 약점에 대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측면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활 및 자녀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한국산업기술재단, 2002;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3).

#### (4) 연구개발성과 및 국내 파급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자체연구 위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그림 3> 참조), 공동연구에 있어서도 국내 연구개발주체와의 교류는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국내 연구개발주체와의 경험이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산업연구원, 2002).

<그림 3>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핵심 연구개발과제 수행 형태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연구개발 형태는 한편으로는 모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연구개발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이 국내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현황 및 환경: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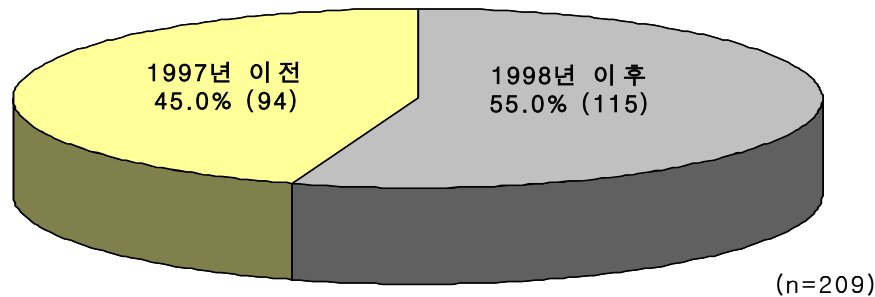
##### (1) Survey의 개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첫째, 이들 연구소들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현황과 둘째, 이들의 유치 및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국내여건과 환경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하반기에 Survey를 실시하였다<sup>2)</sup>.

2) Surevy의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계획했으나, 방문을 위한 사전 접촉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

Survey의 조사범위는 앞서 살펴본 2003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1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 938개소 가운데 외국인 지분을 50% 이상인 연구소 330개소로 한정했다<sup>3)</sup>. 이 가운데 Survey 실시를 위한 사전 접촉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을 변동, 연구소 폐쇄, 주소 파악 불가능, 휴업 및 폐업 등의 이유로<sup>4)</sup> 69개 연구소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 모집단에 포함된 연구소 숫자는 261개소이다. Survey 결과 이들 261개 연구소 가운데 80.1%인 209개소로부터 응답지가 회수되었으며, 개별 응답내용에 대해 전화를 통한 확인 및 보완조사를 거쳤다(<그림 4> 참조).

<그림 4> Survey 응답건수 및 분포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내용의 검토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동기와 연구개발 성격,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외국인연구소 유치환경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성과 및 국내 파급효과와 관련된 Survey 결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 (2) 국내진출 동기와 연구개발 성격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의 국내진출 동기를 살펴보면, 한국시장의 크기 및 성장가능성(46.4%)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어서 동북아지역거점으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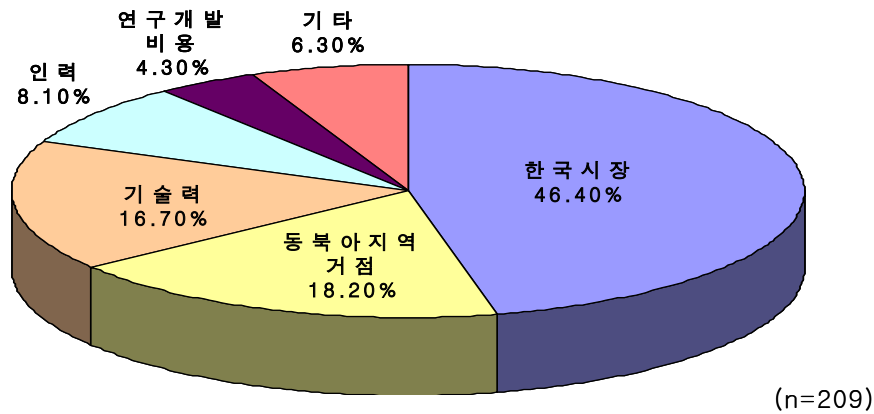
소들이 방문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 우편,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고, 개별 응답 내용에 대해서 2차로 전화를 통한 확인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속성상 연구개발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로의 유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설문지의 조사 항목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개략적인 방향성이나 순서만을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 3)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연구소 등록이 시작된 이래 민간부문의 기업연구소 등록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매년 상당수의 연구소들이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2004년중 (11월말 현재) 연구소 등록이 취소된 곳은 879개소, 새로 등록된 곳은 1,270개소이다. 2003년에는 취소 숫자가 1,218개소, 신규등록 숫자가 1,323개소였다. 최근 폐업 및 연구활동 중단 등의 이유로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연구소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많은 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역시 이같은 전체적인 추세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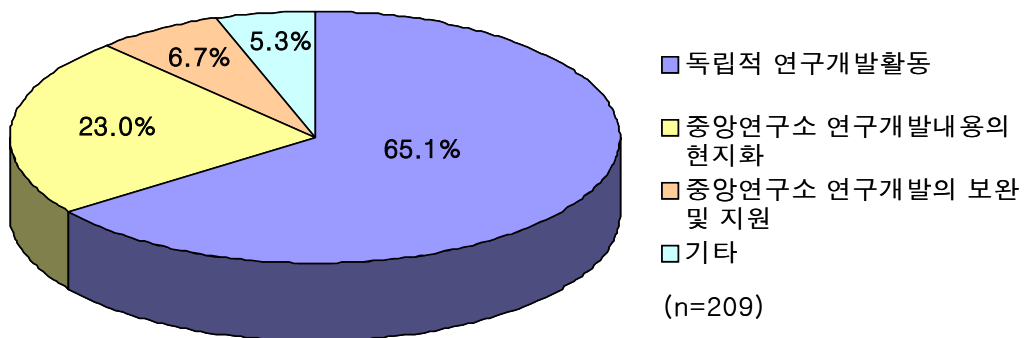
역할을 기대(18.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상대적으로 기술력(16.7%)이나 인력(8.1%), 연구개발비용(4.3%) 및 연구개발지원제도 등 연구개발환경 측면에서의 이점은 연구소 유치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1998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들의 경우 동북아지역거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그림 5>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동기



한편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기업 중앙연구소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신제품/신공정/신기술개발 위주(67.0%)이며, 연구관리시스템 역시 모기업 중앙연구소와는 상관없는 독자적 시스템이 주류이다.

<그림 6>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격



### (3) 연구개발투자자 및 인력

Survey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의 평균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약 40억원, 평균 연구인력 규모는 약 30명 수준이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1%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연구개발투자자의 최대 규모는 450억원, 연구개발투자 100억원 이상인 연구소가 17개소(전기전자 6개소, 기계 8개소)였으며, 연구인력의 최대 규모는 288명, 연구인력 100명 이상인 연구소가 13개소(전기전자 및 기계 각 6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6>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자 및 인력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연구개발집약도
39억 8,900만원	30.7명	2.1%

이밖에 <표 6>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1998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의 경우 이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평균 이하(36억 3,100만원, 28.8명, 1.9%)여서, 이들의 유치로 인한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기업의 지표가 가장 우월(39억 7,300만원, 30.4명, 3.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3년의 추세 및 향후 2-3년의 전망에 있어서 연구개발투자자와 연구인력 모두 지속적인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의 구성 및 비중을 살펴보면 박사급은 물론 전체 연구인력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연구인력의 비중이 매우 낮아, 지식 파급효과 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을 추론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외국인 연구인력의 구성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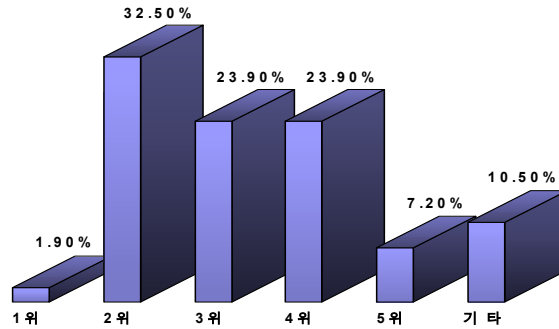


### (4) 외국연구소 유치환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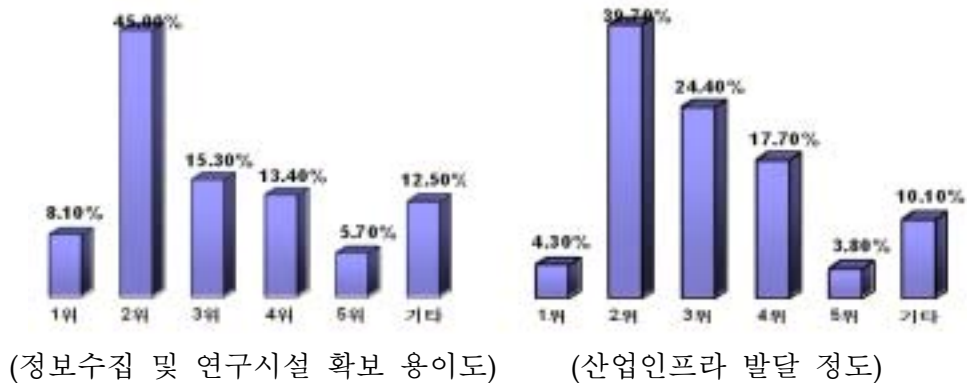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의 6개국과 비교한 한국의 전반적 외국연구소 유치환경 순위는 2-4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분야별로는

정보수집 및 연구시설 확보 용이도와 산업인프라 발달 정도를 특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그림 9> 참조), 상대적으로 외국인 생활환경과 정부지원제도 및 인센티브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8> 외국연구소 유치환경의 국제비교(전반적 평가)



<그림 9> 외국연구소 유치환경의 국제비교(강점분야)



(정보수집 및 연구시설 확보 용이도)      (산업인프라 발달 정도)

<그림 10> 외국연구소 유치환경의 국제비교(약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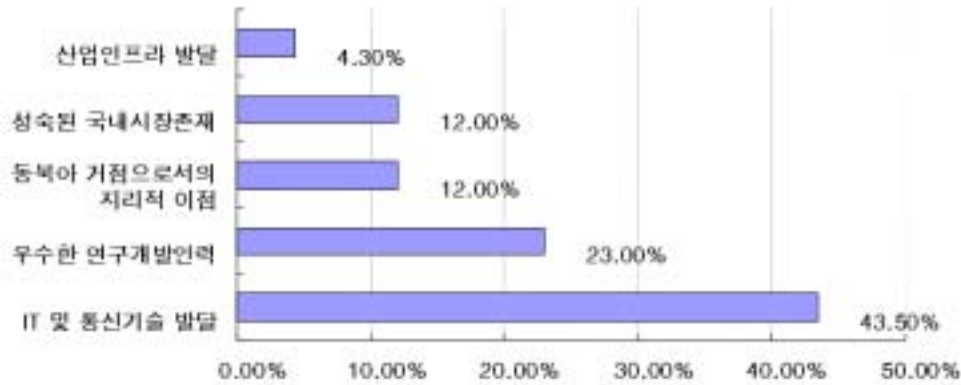


(외국인 생활환경)      (정부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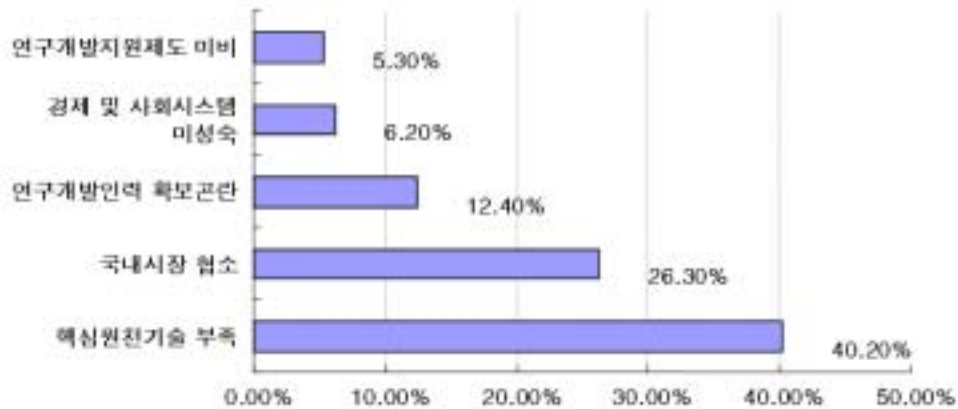
한편 국내 유치환경의 강점으로는 IT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구개발인력의 우수성이(<그림 11> 참조), 그리고 약점으로는 핵심원천기술 부족과 국내시장 협소가

(<그림 12> 참조) 각각 지적되었으며,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은 역시 "연구인력의 확보 곤란"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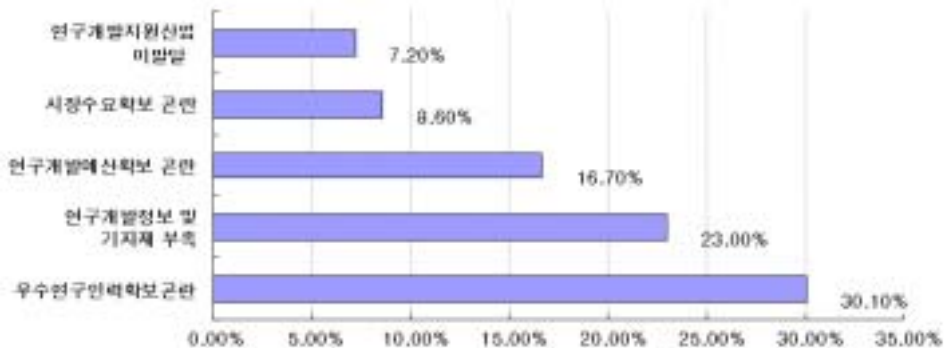
<그림 11> 국내 유치환경의 강점



<그림 12> 국내 유치환경의 약점



<그림 13> 국내 연구개발환경의 애로사항



#### (5) 연구개발성과 및 국내 파급효과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자체 기술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기술경쟁력 수준이 높다(52.2%)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경쟁력이 더 강해졌다(62.7%)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유건수가 전체 평균 102건에 불과한데다가, 이 가운데 10건 미만(0건 포함)인 경우가 58.9%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주체와의 공동연구 경험은 67.5%가 경험이 있으나, 공동연구의 실적 측면에서는 공동발명(0.32건), 공동특허취득(0.62건), 공동논문저술(1.21건) 모두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소의 82.5%가 아예 실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맺음말

기존 연구내용의 검토 결과와 이번에 새로 실시된 Survey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국내진출 동기는 전통적으로 시장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부터는 동북아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활동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내용 및 연구관리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의 절대규모가 작고, 연구내용 또한 생산과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연구개발주체들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은 국내여건 및 환경에 대해서 인프라 및 인력요인을 강점으로, 그리고 기술 및 시장요인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개선요망사항으로는 포괄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직접적인 인센티브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치체제 정비와 환경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내 연구개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 정도의 연구소만 활용 경험이 있는 실정인바,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홍보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은 설립시기별, 외국인 지분율별, 업종별, 투자국별 등의 제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각 유형별로 고유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을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0),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2),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2000), 글로벌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산업연구원(2002), 2000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한국산업기술재단(2002),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효과 제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9),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R&D 실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0),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실태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 주한 외국기업연구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민간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2003), 동북아 R&D허브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